보시 실현 이색전시 '인기'

부처님오신날 맞아 일산 동국대병원 법당, '붓다의 세계 나눔 전시회'

일산 동국대병원(의료원장 민응기)에서 보시와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이색 나눔 전시회가 열려 인기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산 동국대병원 법당(지도법사 대엽)은 병원 1층 로비에 '붓다의 세계 나눔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물품은 100% 기증받은 것으로 구성됐다. 전시품 판매기금은 의료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돼 승가의료복지기금,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국내외 의료봉사 지원금, 불자의료인 양성 장학금 등으로 사용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행된 전시회는 불교용품을 중심으로 전시 판매되고 있다. 전시가 시작된 4월 18~19일에는 스님들이 쓰던 염주, 다기, 밥그릇, 숟가락 등이 삽시간에 동이 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병원 교직원 및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자원 봉사자회, 간병인 연합회, 고양시 사암연합회, 중앙승가대, 한국전통서각예술협회 등을 중심으로 기증받은 물품에는 염주·그림·도서·서예·서각·법문 CD·법당 소장품인 위패, 기도초 등 불교용품을 비롯해 다기 세트, 의류, 도서, 의료용품 등이다. 그밖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스님들이 직접 그리거나 만든 보시물품을 기부해 나눔과 회향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시회에는 중원 스님의 달마도 시연도 함께 진행돼 활기를 더하고 있다. 위독한 어머니를 위해 달마도를 그려가는 선금자 씨는 "달마도 그림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고 말했다.

환자, 보호자, 방문객 등 스님의 그림을 받아가는 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고영환 씨는 달마도 대신 가훈인 '중용(中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고 씨는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와서 이 글을 받아가니 기쁘다. 병원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다"고 전했다.

중원 스님은 기복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이들에게 "달마도는 병을 낫게 해 주는 신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비우고 고요하게 사는 것, 욕심을 줄이고 이웃을 위해 살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며 짧은 법문도 함께 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동국대병원 법당 지도법사인 대엽 스님이 지난 해 취임 이후부터 시작된 '묵은 짐 내려놓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님은 지난해 취임 후 4개월 여 만에 기증품을 받아 1900여 만원을 의료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365일 사용하지 않는 불교용품, 생활용품, 의료용품 등을 받아 연 4회 정기적으로 나눔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엽 스님은 "전시회는 종교적인 차원을 벗어나 문화로 접근하는 새로운 포교활동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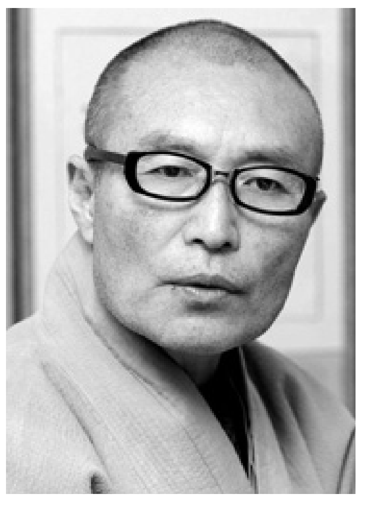
이어 스님은 "의료사회복지기금 중 불자 의료인 양성을 위해 연구지원비, 상급학교 지원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은 동국대 불교병원의 서비스 질을 높여 명품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는 365일 의류·신발·문구류 등 생활용품, 의료용품, 불교용품을 받고 있다. (031)961-9222

이상언 기자

박 기 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인류애와 동체대비의 정신 실천"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 원 스님, 내실있는 구호활동 강조



"새롭게 태어난 위드아시아가 나눔과 평등을 실천하고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위드아시아의 이사장 지원 스님이 4월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활동취지와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위드아시아는 2004년 부산불교계 사부대중을 중심으로 설립된 대북지원단체인 '참여불교운동본부'와 통합하면서 올해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로 개명 승인을 받았다. 통합 전 부산 문수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위드아시아는 인도와 태국에 학교 설립 등 제3세계 10여개 빈곤 지역을 위한 각 종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통합 후에는 그동안 '참여불교운동본부'가 추진하던 대북지원 사업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신발보내기, 통일자전거 보내기 운동, 남북학생 미술 전시회 등을 개최해 왔다.

두 단체의 통합에 따라 지원 스님이 밝힌 위드아시아의 사업 방향은 국제구호, 대북지원, 국내소외계층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위드아시아는 캄보디아에서도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 안전한 식수공급, 위생시설 확보, 교육을 위한 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에 캄보디아 지부장을 파견했다. 캄보디아 쁘레이끄랑 마을에 마련할 계획인 '위드아시아 어린이공부방'에서는 비취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자와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향후에는 초등학교, 마을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및 생필품 보내기 운동을 실시한다. 또한 '제1회 평화통일 염원 부산시민 걷기대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내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위드아시아는 '합천평화의집'을 통한 국내소외계층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합천평화의집'은 위드아시아가 통합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설립에 함께해 온 곳이다. 올해는 원폭피해자 2세 복지지원센터를 개소했고, 추모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드아시아는 합천평화의집 활동을 통해 방사능 피해자 전반에 대한 주도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스님은 "한국불교는 그동안 대승불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구적 차원의 빈곤문제에 대한 실천이 미흡했다. 위드아시아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불교계 전체의 구호 활동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인재불사 없이 불교 미래없다"

벽담장학회, 2011년도 장학금 전달

"인재불사 없이 한국불교의 미래도 없습니다."

하남 성불사(주지 학명) 산하 재단법인 벽담장학회(이사장 민경동)는 4월 16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10회 2011학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학인 스님과 청년불자 26명에게 2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벽담장학회는 동국대 불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스님과 재학생 11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광동고, 청담정보고 등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불자 15명에 1인당 8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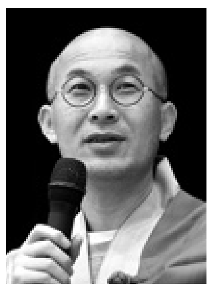
벽담장학회를 설립한 학명 스님은 "인재 불사를 소홀히 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불자들이 인재불사에 동참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수를 앞으로 더욱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명 스님과 민경동 이사장 등 성불사 불자들은 10년 간 인재불자의 원력으로 십시일반 장학금 모금에 동참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불자 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된 장학금 총액은 1억 3000만원에 달한다. (02)400-5915

노덕현 기자

지거 스님 보건복지부장관상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서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지거 스님이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4월 20일 백범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편견은 차별을 낳습니다. 배려는 평등을 낳습니다'란 주제로 기념식을 갖고 장애인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거 스님은 장애인·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거 스님은 재가장애인뿐 아니라 노숙인, 아동, 여성 등 그동안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정진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스님은 서울시 노숙인시설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노숙인 복지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거 스님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대신해 수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나은 기자

한국종교연합, 개최 평화포럼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이 '천주교와 종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제56차 평화포럼을 연다. 수운회관 해민재에서 4월 29일에 열리는 평화포럼은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역할의 중요성을 점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포럼에는 성심여중고 교장인 김숙희 수녀가 발제에 나서고 토론자로는 김재완 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박기범 기자

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 교육

불교환경연대가 숲해설가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11월 6개월 과정으로 실시되며 이론과 현장 교육이 병행된다. 이번 양성과정에서는 △숲해설가 소양 증진을 위한 환경철학 △집단 지도론 △생태론 및 개체 생태학 등이 교육된다. 교육 수료후에는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턴쉽과 연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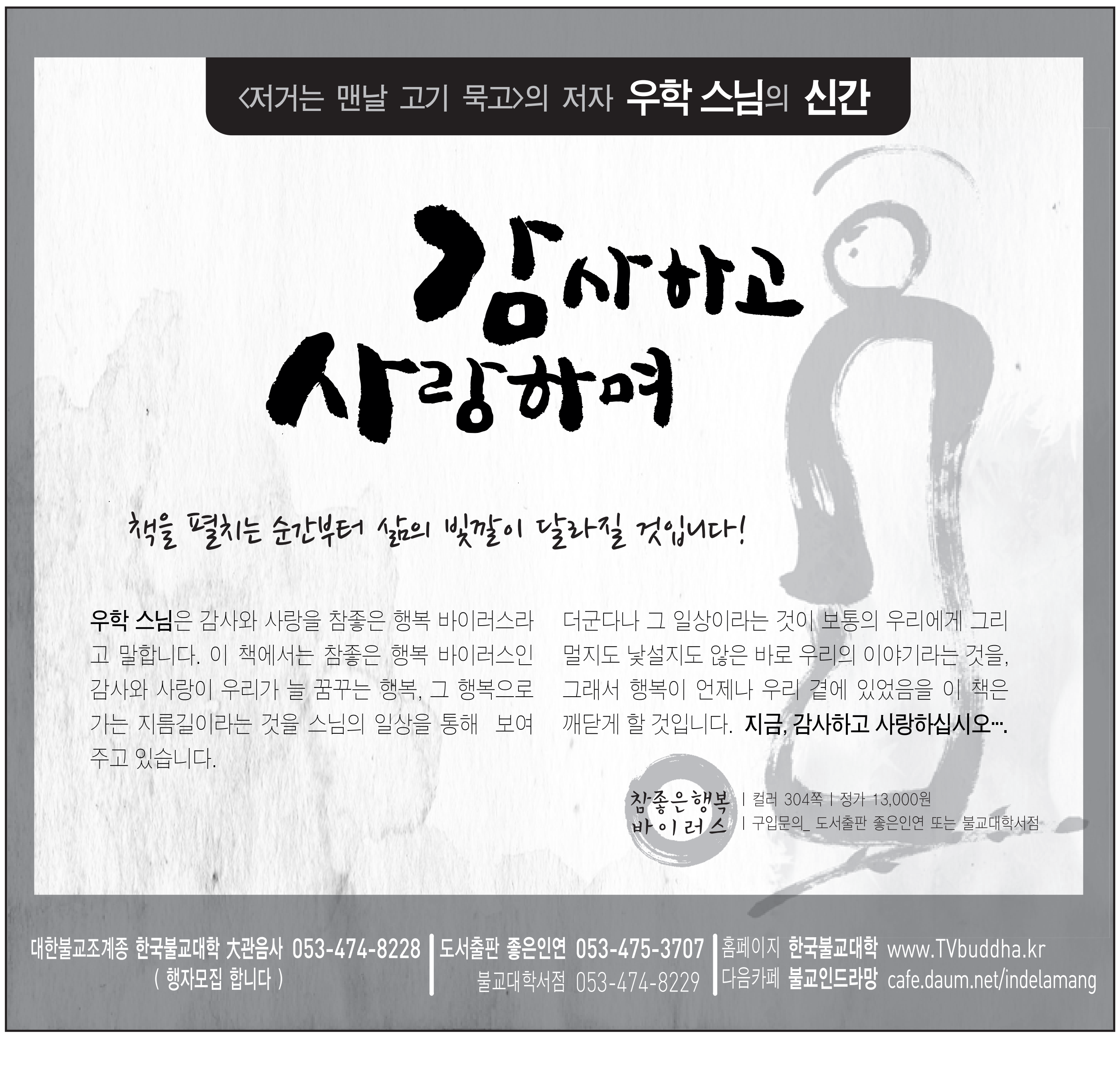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템플스테이 종합 정보 센터 교육장에서 이론 교육이 실시되고, 현장 교육은 의왕시 청계산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박 2일 연수도 구성돼 있다. 140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02)734-1915

박기범 기자

일본지진피해 성금 전달

구본일 BTN 사장은 4월 20일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일본 지진피해 지원과 긴급구호를 위해 써달라며 8000만원을 전달했다.

약사사(주지 종민)도 같은 날 일본 지진피해 지원과 긴급구호를 위한 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주지 종민 스님은 "약사사에서 모금 등을 통해 마련된 기금이다. 피해 복구를 위해 잘 사용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흥사(주지 범각)는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3500만원을 전달했다. 대흥사는 교육불사 후원 1500만원, 군법당 설립 10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나눔의 집' 500만원,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 500만원 등을 지정 기탁했다.

박기범 기자